

『靈樞·海論』의 四海 輸穴 선정에 대한 고찰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 ²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安鎮燾^{1,2*}

A Study on Shu Points Selection of the Four Seas in Lingshu Hailun

Ahn Jinhee^{1,2*}

¹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o study the shu points selection of the Four Seas in the 「Hailun」 chapter of 『Lingshu』.

Methods : The effects and main indications of each shu point, their anatomical position, characteristics along with similarities of disease patterns according to excessiveness and deficiency of the Four Seas were examined.

Results : The selection of shu points of the Four Seas were deeply related to the effects and main indications, and the common similarity among conditions due to excessiveness and deficiency was the presence of psychological aspects. Also, when the Four Seas are connected to the Jing-Qi-Shen and Blood, marrow sea[髓海] is connected to Jing & Shen, qi sea[氣海] is connected to Qi, blood sea[血海] is connected to Blood, and sea of water and grain[水穀之海] replenishes Jing-Qi-Shen and Blood. When connected to the Four Qi Intersections, the marrow sea is connected to 'head qi with intersection', qi sea is connected to 'chest qi with intersection', sea of water and grain or blood sea is connected to 'stomach qi with intersection', otherwise sea of water and grain is connected to 'shin qi with intersection'.

Conclusions : The Four Seas are designated to the shu points due to their accumulation of Qi when the main elements of Jing-Qi-Shen and Blood are deficient or excessive, allowing for the most convenient management and manipulation of the condition of these main elem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shu points of the Four Seas will likely increase treatment efficacy for conditions that include psychological aspects.

Key words : Lingshu·Hailun(靈樞·海論), marrow sea(髓海), blood sea(血海), qi sea(氣海), sea of water and grain(水穀之海)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Fax : +82-2-961-9229, Email : jimi@khu.ac.kr

Received(May 7, 2020), Revised(May 10, 2020), Accepted(May 10,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靈樞·海論』에는 인체의 十二經水가 모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를 東西南北으로 나누어 髓海, 血海, 氣海, 水穀之海 등의 四海를 설정하였으며, 이 四海가 天地의 四海에 相應함을 말하였다.¹⁾

또한 胃는 水穀之海로 그 輸穴이 氣街와 三里에 있고, 衝脈은 十二經之海로 그 輸穴이 大杼와 巨虛 上下廉에 있으며, 膻中은 氣海로 그 輸穴이 柱骨之上下와 人迎에 있고, 腦가 髓海로 그 輸穴이 蓋와 風府에 있다고 하였다.²⁾

그러나 그 輸穴이 선정된 것을 살펴보면 髓海의 輸穴이 그 蓋와 風府여서 腦라는 범위 안에 포괄되는 반면에 水穀之海의 輸穴은 胃의 噴門과 幽門 사이에 존재하는 中脘과 같은 수혈이 아니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氣街와 三里이고, 血海의 輸穴은 衝脈에 속하는 輸穴이 아니고, 足太陽膀胱經에 속하는 大杼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巨虛上下廉이며, 氣海의 輸穴은 膻中 근처의 華蓋, 紫宮, 玉堂 등의 輸穴이 아니라 목 부위인 柱骨之上下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人迎이 선정되어 四海의 輸穴들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靈樞·海論』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논문 중 『黃帝內經·四海發微』에서는 四海의 有餘와 不足에 따라 나타나는 病候를 四海의 輸穴로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輸穴의 특성을 조금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補瀉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치우쳤으며³⁾, 『淺析四海理

論及臨床應用』⁴⁾과 『靈樞海論對針灸臨床的理論指導』⁵⁾에서도 四海의 輸穴에 대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소략하게 언급했으나, 논의의 중점은 四海이론의 임상응용에 있었다.

『靈樞·海論』과 관련된 한국 논문에서는 『靈樞·海論』에 대한 研究⁶⁾가 있었으나, 注釋家들의 輸穴을 논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였고, 왜 그렇게 선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논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국 논문 중 『八會穴에 대한 考察』⁷⁾에서는 『難經』에 나오는 八會와 『內經』의 四海를 연결시켜 四海를 분화하여 세분화한 것이 八會라고 보고, 八會穴과 四海의 유여·부족증을 서로 비교하였으나, 四海의 輸穴 선정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 四海 輸穴 선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다룬 논문은 거의 없었기에 論者는 『靈樞·海論』에 나오는 輸穴에 대하여 四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의 공통점과 각 輸穴의 효능 주치, 해부학적 부위, 특징을 살피는 등의 방법을 통해 四海 輸穴 선정의 이유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각 輸穴의 해부학적 부위는 전국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경락경혈학 책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였고, 같은 책에 기재된 『鍼灸甲乙經』의 효능 주치를 참고하였다. 원칙적으로 1차 문헌에 해당하는 『鍼灸甲乙經』을 인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輸穴의 효능주치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므로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경락경혈학 책을 참고하였다. 특히 輸穴의 특징은 『黃帝內經』 전체에서 四海 輸穴로 선정된 輸穴들을 각각 검색해서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고, 四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 四海의 공통적인 기반을 살펴보았다.

『靈樞·海論』에 나오는 四海 輸穴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 臨床 치료에서 四海 輸穴을 정

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 黃帝曰, 以人應之奈何. 岐伯曰,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以應四海也.”
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膻中者, 爲氣之海, 其輸上在於柱骨之上下, 前在於人迎.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 같은 책에서 ‘至’에 대하여 綱目 卷七 引文에는 ‘在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3) 陳志耿, 高嘉駿. 黃帝內經四海發微. 中華中醫藥雜誌. 2018. 33(11). pp.5082-5084.

4) 陳靜雯, 陳麗, 何昭璇, 曾芳. 淺析四海理論及臨床應用. 成都中醫藥大學學報. 2018. 41(4). pp.93-95.
5) 遲笑塵, 王玲. 靈樞海論對針灸臨床的理論指導. 湖北中醫雜誌. 2016. 38(9). pp.28-30.
6) 강현식, 박경. 『靈樞·海論』에 대한 研究. 한국전통의학지. 2000. 10(1).
7) 김진호, 임이빈, 방정균. 八會穴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3). pp.36-54.

신적인 측면이 내재된 질환에 활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I. 本論

1. 髓海 輸穴 선정의 이유

『靈樞·海論』에서 “腦는 髓의 바다가 되어 그 輸穴이 위로는 蓋에 있고, 아래로는 風府에 있다.”⁸⁾고 했는데, 風府는 뒤쪽 목 부위, 바깥 뒤통수뼈 움기에서 수직으로 아래쪽, 양쪽 등세모근 사이의 오목한 곳⁹⁾으로 그 輸穴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蓋라고 한 것은 뚜껑, 덮개라는 의미로 頭蓋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黃帝內經』 注釋家들의 注釋처럼 百會나 顛會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靈樞·海論』에서 “髓海가 有餘하면 가볍고 굳세며 힘이 많고, 스스로 그 한도를 넘고, 髓海가 부족하면 腦가 회전하여 귀가 울고 정강이가 시큰하며 눈앞이 아찔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게을러져서 눕는 것을 편안해 한다.”¹⁰⁾라고 했다. 이는 髓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이 너무 과하게 행동하거나 머리가 펑 돌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눈앞이 깜깜해지고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귀찮아지며 자꾸 눕고 싶어 하는 등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측면이 있다. 이에 髓海 輸穴의 해부학적인 부위, 효능 주치, 특징들을 살펴 髓海 輸穴 선정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蓋

蓋에 대하여 기존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楊上善은 百會穴이라고 하였고¹¹⁾, 馬蒔도 또한 百會

穴이라고 했으며¹²⁾, 張介賓은 蓋는 頭蓋骨로 顛會穴이라고 했고¹³⁾, 張志聰은 蓋를 어떤 輸穴로 표시하지 않고 蓋라고 하였으며¹⁴⁾, 黃元御는 顛會穴로 보았다¹⁵⁾. 注釋家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百會穴, 顛會穴, 蓋 자체로 본 것 등 세 가지로 그 의견이 나뉜다.

만약에 楊上善이나 馬蒔처럼 蓋를 百會로 보거나 張介賓이나 黃元御처럼 顛會로 본다면 蓋는 그 의미가 매우 협소해진다. 만약에 특정한 혈자리였다면 『靈樞·海論』의 作者는 분명히 그 輸穴의 명칭을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蓋는 분명 그 대상이 百會나 顛會와 같이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頭蓋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넓은 부위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注釋家들 중에 유일하게 張志聰만이 蓋를 어떤 輸穴로 표시하지 않고 蓋라고 하였는데¹⁶⁾, 論者도 이에 동의한다. 四海의 輸穴 선정에 있어서 氣街, 三里, 大杼, 巨虛上廉, 巨虛下廉, 人迎, 風府처럼 뚜렷하게 그 輸穴을 말한 곳도 있지만, 柱骨之上下처럼 輸穴을 말하지 않고 넓게 지칭한 곳이 있기에 髓海와 관련하여 말한 蓋를 어느 한 輸穴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통 四海를 말할 때 四氣街도 함께 관련지어 말하는데, 『靈樞·衛氣』에서도 “氣가 머리에 있는 경우에는 腦에서 그친다.”¹⁷⁾라고 하여 넓게 보았

京. 學苑出版社. 2006. p.73. “胃流津液, 滲入骨空, 變而爲髓, 頭中最多, 故爲海也. 是腎所生, 其氣上輸腦蓋百會之穴, 下輸風府也.”

12) 馬蒔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11. “腦爲髓之海, 其輸穴在於其蓋, 即督脈經之百會.”

13) 張介賓 原著.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類經 編纂委員會 編者. 懸壺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387. “凡骨之有髓, 惟腦爲最巨, 故諸髓皆屬於腦而腦爲髓之海, 蓋腦蓋骨也, 即督脈之顛會.”

14) 張隱庵·馬元臺 譯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246. “腦爲髓之海, 氣在頭者, 止之於腦, 故其輸上在於其蓋, 下在督脈之風府, 是髓海之上通於天而下通於經水也.”

15) 黃元御 撰. 靈樞懸壺(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30. “蓋, 腦蓋骨, 督脈之顛會.”

16) 張隱庵·馬元臺 譯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246. “腦爲髓之海, 氣在頭者, 止之於腦, 故其輸上在於其蓋, 下在督脈之風府, 是髓海之上通於天而下通於經水也.”

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

9)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下). 大田. 종려나무. 2016. pp.520-525.

1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11) 楊上善 撰注. 錢超塵·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

고, 『素問·水熱穴論』에서 熱病을 치료하는 五十九俞를 언급할 때 頭部에서 “머리 위에 다섯 개의 줄이 있고, 줄마다 다섯 곳은 모든 陽經의 熱이 거스르는 것을 넘겨버린다.”¹⁸⁾라고 하여 頭部の 輸穴이 함께 지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蓋를 어느 하나의 輸穴로 지칭할 필요는 없고, 蓋가 頭蓋로써 腦의 범주¹⁹⁾ 안에 속하므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蓋에 속하는 輸穴들의 효능주치를 알아본 결과²⁰⁾, 督脈에 속하는 前頂은 風眩目暝을, 百會는 目如脫을, 後頂은 風眩目眩·狂走를, 頸間은 狂走를, 腦戶는 目不明·骨痠·眩·狂을 치료하고, 足太陽膀胱經에 속하는 承光은 青盲遠視不明을, 絡却은 目妄見·狂走를, 足少陽膽經에 속하는 上關은 青盲을, 額厭은 目眩無所見을, 本神은 目眩을, 頭臨泣은 不得視를, 目窓은 青盲無見·遠視目眩을, 腦空은 腦風目暝·風眩을, 風池는 耳目不明을 치료하는 등 蓋에 있는 輸穴들이 두루 髓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을 치료하므로 髓海의 輸穴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風府²¹⁾(GV16, Pungbu, Fengfu)

- 1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6. “氣在頭者, 止之於腦.”
- 1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4. “頭上五行, 行五者, 以越諸陽之熱逆也.”
- 19) 腦의 범주는 腦의 기능과 구조를 모두 포괄하지만, 여기서는 腦의 구조를 위주로 보았음을 밝힌다. 김범식의 논문에 의하면 『黃帝內經』이나 『難經』에서 臟腑의 무게, 형태, 수치들은 解剖를 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지식들이라고 하여 구조적인 측면도 함께 논의했다. 김범식, 韓醫學의 腦에 대한 研究 - 文獻考察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pp.1-167.
- 20) 蓋에 속하는 輸穴의 효능주치는 전국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경락경혈학 책에 나오는 『鍼灸甲乙經』의 효능 주치를 참고하였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p.553, p.559.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下), 大田, 종려나무, 2016. p.263, p.265, p.291, p.296, p.299, p.305, p.309, p.526, p.528, p.530, p.532, p.539.
- 21) 風府와 관련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

風府는 督脈에 속하는 輸穴로 風府의 부위와 효능 주치,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部位】 뒤쪽 목 부위(posterior region of the neck), 바깥뒤통수뼈을기]](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에서 수직으로 아래쪽, 양쪽 등 세모근(trapezius m.) 사이의 오목한 곳. 『鍼灸甲乙經』: “在項²²⁾上, 入髮際一寸, 大筋內宛宛²³⁾中, 疾言其肉立起, 言休其肉立下.”

【概要】 膀胱經·督脈·陽維脈의 交會穴, 十三鬼穴(鬼枕)

【主治】 『鍼灸甲乙經』 足不仁, 刺風府. 頭痛項急, 不得傾倒, 目眩, 鼻不得喘息, 舌急難言, 刺風府主之. 狂易多言不休, 及狂走欲自殺, 及目妄見, 刺風府.

『黃帝內經』에서 風府는 주로 外感風邪가 들어오는 길목으로 인식했고, 風邪를 다스리는 輸穴로 인식했다. 『素問·瘧論』에서는 邪氣가 風府로 들어가서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과정을 말했다²⁴⁾, 『素問·風論』에서는 “風!氣가 風府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腦風이 된다.”²⁵⁾고 했으며, 『素問·骨空論』에서는 風邪가 밖으로부터 들어와 振寒, 汗出頭痛, 身重惡寒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風府穴을 써서 다스린다²⁶⁾

- 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下), 大田, 종려나무, 2016. pp.520-521.
- 22)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p.262-263. 校勘에서 원래는 ‘項’으로 되어 있으나, 正統本, 『千金』, 『外臺』에 근거하여 수정했다고 한 내용을 따라 ‘項’으로 수정하였다.
- 23)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p.262-263. 校勘에서 원래는 ‘穴’로 되어 있으나, 『千金』, 『外臺』, 『素問·氣府論』의 王注에 근거하여 수정했다고 한 내용을 따라 ‘宛宛’으로 수정하였다.
- 2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0. “其作日晏與其日早者, 何氣使然, 岐伯曰: 邪氣客於風府, 循脊而下, 衛氣一日一夜大會於風府, 其明日日下一節, 故其作也晏, 此先客於脊背也, 每至於風府則腠理開, 腠理開則邪氣入, 邪氣入則病作, 以此日作稍益晏也.”
- 2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7. “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
- 2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9. “黃帝問曰, 余聞風者百病之始也, 以鍼

고 하였다. 風府는 後髮際에서 안으로 1寸 올라간 곳에 위치하여 腦의 범주 안에 속하고, 髓海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目眩을 치료하며, 髓海가 유여할 때 나타나는 狂易多言不休, 狂走欲自殺 등의 狂症을 다스리므로 髓海의 輸穴로 선정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風府는 督脈에 속하는데, 督脈은 모든 陽經을 통솔하고 척추의 내부를 주로 흐르며, 督脈의 유주노선에서 風府를 통해 腦로 들어가므로²⁷⁾ 髓海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血海 輸穴 선정의 이유

『靈樞·海論』에서 “衝脈은 十二經의 바다가 되어 그 輸穴이 위로는 大杼에 있고, 아래로는 巨虛上廉과 巨虛下廉에서 나온다.”²⁸⁾고 했는데, 大杼는 足太陽膀胱經에 속하고, 巨虛上廉과 巨虛下廉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데, 血海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血海의 有餘와 不足에 따른 병증과 上記 輸穴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靈樞·海論』에서는 “血海가 유여하면 항상 그 몸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답답한 듯 그 병든 곳을 알지 못하고, 血海가 부족하면 또한 항상 그 몸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좁은 생각에서 그 병든 곳을 알지 못한다.”²⁹⁾고 했다. 보통 血이 유여하다고 하면 혈이 정체되기 쉬우므로 蓄血證이나 瘀血證으로 나타날 수 있고, 血이 부족한 경우에는 眩暈, 不眠 등의 病證을 예상할 수 있는데, 『靈樞·海論』에서 말한 血海의 病證은 자신의 몸이 크거나 작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일종의 망상이나 환각이며 발끈하거나 위축되어 病識이 없는 것 등은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측면이 있다.

楊上善은 血海 유여를 血이 많고 脈이 왕성한 것으로 보았고³⁰⁾, 張介賓은 形을 채우고 있는 것이 血이어서 血이 유여하면 그 몸이 크다고 생각하고, 血이 부족하면 그 몸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病이 血에 있을 경우에는 그 반응이 현현하지 않으므로 병이 들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다³¹⁾. 『靈樞·海論』에서 血海와 관련하여 선정한 輸穴은 大杼, 巨虛上廉, 巨虛下廉으로 그 부위와 효능 주치,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1) 大杼³²⁾(BL11, Daejeo, Dazhu)

大杼는 足太陽膀胱經에 속하는 輸穴로 大杼의 부위와 효능 주치,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部位】 위쪽 등 부위(upper back region), 첫째 등뼈가시돌기(spinous process of the 1st thoracic vertebra) 아래머서리와 같은 높이, 뒤정중선(posterior median line)에서 가쪽으로 1.5寸. 『鍼灸甲乙經』: “在項第一椎下, 兩傍各一寸五分. 陷者中.”

【概要】 八會穴(骨會), 足太陽膀胱·手太陽小腸·足少陽膽·手少陽三焦의 交會穴

【主治】 『鍼灸甲乙經』: 頸項痛不可以俛仰, 頭痛, 振寒, 癩癧, 氣實則脅滿, 使脊有竝氣, 熱, 汗不出, 腰背痛, 大杼主之. 筋癱疾者, 身卷拳急, 脈大, 刺項大經之大杼, 嘔多涎沫, 氣下泄不治.

大杼는 첫째 흉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인 곳에 자리한 足太陽膀胱經의 輸穴로 八會穴 중

治之, 奈何. 岐伯對曰, 風從外入, 令人振寒, 汗出頭痛, 身重惡寒, 治在風府, 調其陰陽, 不足則補, 有餘則瀉. 大風頭項痛, 刺風府, 風府在上椎.”

27)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범인문화사. 2010. p.80. “督脈者, 起於下極之俞, 竝於脊裏, 上至風府, 入屬於腦.”

2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2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30) 楊上善 撰注. 錢超塵·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3. “血多脈盛, 故神想見身大也.”

31) 張介賓 原著.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類經 編纂委員會 編著. 懸吐註釋類經. 서울. 범인문화사. 2017. p.387. “形以血充, 故血有餘則常想其身大, 怫, 怫鬱也, 重滯不舒之貌, 血不足則常想其身小, 狹, 隘狹也, 索然不廣之貌, 此皆血海不調之爲病, 病在血者徐而不顯, 故茫然不覺其所病.”

32) 大杼와 관련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pp.568-572.

骨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腎은 骨髓를 생성시키고, 髓는 肝을 생하게 한다.”³³⁾라고 하여 腎과 骨髓와의 관계를 말했고, 骨髓가 肝을 생하게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水生木을 의미하며, 骨會인 大杼가 비록 衝脈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血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大杼穴의 효능 주치 중에 筋癱疾로 身卷攣急하고 脈大한 경우에 大杼穴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는 『靈樞·癱狂』에 나오는 것으로³⁴⁾ 癱疾의 증상에 근육이 攣하고 拘急하여 몸이 구부러지는 筋癱疾을 다스릴 때 大杼穴을 사용하는 것으로 癱疾은 精神病의 일종이고, 『靈樞·海論』에서 말한 血海의 病證은 일종의 망상과 환각과 病識이 없는 것 등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측면이 있으므로 大杼를 血海의 輸穴로 선정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大杼는 足太陽膀胱經뿐만이 아니라 手太陽小腸經, 足少陽膽經, 手少陽三焦經의 交會穴이며, 八會穴 중 骨會이기도 하다. 血海는 十二經之海라고도 하고 衝脈과 연관성이 큰데, 大杼가 血海의 輸穴로 선정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衝脈의 노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³⁵⁾.

衝脈의 衝은 요충지의 의미로 『素問·骨空論』에서 氣街에서 일어나 少陰經과 나란히 달리다가 胸中에서 흩어진다³⁶⁾고 했고, 『素問·氣府論』에서는 衝脈의 脈氣가 發하는 곳이 22穴이라고 했는데³⁷⁾, 이 輸穴

들은 모두 足少陰腎經과 일치한다. 『素問·舉痛論』에서 寒氣가 衝脈에 침범했을 때 脈氣가 關元에서 일어나 腹部를 따라서 곧장 올라간다³⁸⁾고 했으며, 『素問·痿論』에서 “衝脈은 經脈의 바다로써 계곡에 흘러 들어가 氣血을 대주고, 陽明과 宗筋에서 합하며, 陰陽이 宗筋의 모임을 총괄하고 氣街에서 모여 陽明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두 帶脈에 속하며 督脈에 이어진다.”³⁹⁾라고 했고,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衝脈을 말하면서 衝脈이 위로는 頰頰에서 나와 모든 陽經에 스며들어 모든 精을 흘러들어가게 하고, 그 아래로는 足少陰의 大絡에 주입되어 氣街로 나와 허벅지 안쪽의 모서리를 따라 오금 속으로 들어가서 정강이 안쪽을 지나 內踝의 뒤쪽에 이르러 갈라지며, 아래로 가는 것은 足少陰經과 나란히 가서 三陰經에 스며든다⁴⁰⁾고 했으며, 『靈樞·五音五味』에서는 衝脈이 胞中에서 일어나 등속을 순행하다가 그 떠서 밖으로 가는 것은 복부쪽을 순행하여 咽喉에서 모이고 입술에 이어진다고 했고⁴¹⁾, 『靈樞·動輸』에서는 衝脈이 十二經脈의 바다로 腎下에서 일어나 氣街로 나와서 사타구니 안쪽을 순행하여 오금으로 들어가고 脛骨의 안쪽으로 足少陰腎經과 함께 內踝 뒤쪽으로 간다⁴²⁾고 했다.

3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 “腎生骨髓, 髓生肝.”

3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34-136. “筋癱疾者, 身倦攣急, 大刺項大經之大杼脈, 嘔多沫, 氣下泄, 不治.” 같은 책에서 ‘倦’에 대하여 甲乙, 太素, 千金에는 ‘攣’로 되어 있는데, ‘攣’는 ‘倦’의 借字이라고 하였으므로 倦으로 해석하였다.

35) 衝脈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丁軫炫.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1). pp.223-234.

곽범희, 윤중화.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關係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19. 32(4). pp.47-55.

3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9.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3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7. “衝脈氣所發者, 二十二穴. 俠鳩尾外各半寸, 至臍上一寸. 俠臍下傍, 各五分, 至橫骨上一寸, 腹脈法也.”

3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5. “寒氣客於衝脈, 衝脈氣於關元, 隨腹直上, 寒氣客則脈不通, 脈不通則氣因之, 故喘動應手矣.”

3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6.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摠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4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89. “夫衝脈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稟焉. 其上者, 出于頰頰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股內廉, 入臍中, 伏行胛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

4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82.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各(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唇口.” 같은 책에서 ‘循腹右上行’에 대하여 『素問·腹中論』, 『奇病論』, 『骨空論』王注引『鍼經』에는 ‘循腹各行’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顧氏 校記에 ‘右乃各字之誤’라고 하였다.

4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7.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并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이처럼 衝脈과 관련해서 『黃帝內經』 내에서의 논술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胞中에서 일어나서 足少陰腎經과 병행하여 위로 가는 노선이 있고, 氣街를 기점으로 사타구니 안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大杼는 足太陽膀胱經에 속하는 輸穴로 足少陰腎經과 表裏를 이루는 經脈이기는 하나, 衝脈 또는 血海와의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衝脈과 관련된 『黃帝內經』의 논술 중 『靈樞·逆順肥瘦』에서 衝脈이 위로는 顛頰에서 나와 모든 陽經에 스며들어 모든 精을 흘러들어가게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大杼가 顛頰에서 나온 脈氣를 모든 陽經에 스며들게 할 때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大杼는 足太陽膀胱經, 手太陽小腸經, 足少陽膽經, 手少陽三焦經이 교차하여 만나는 交會穴로 『靈樞·本輸』에서 腎이 膀胱과 상합함을 말하면서 腎이 膀胱과 三焦를 함께 이끌고 있음을 말한 것과⁴³⁾ 합쳐서 생각해 보면, 大杼穴이 衝脈인 血海의 輸穴로 선정된 것은 衝脈이 요충지로서 十二經脈의 氣血을 받아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데, 大杼가 足太陽膀胱經, 手太陽小腸經, 足少陽膽經, 手少陽三焦經이 교차하여 만나는 交會穴로 上焦 氣機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黃帝內經』 내에서 쓰인 大杼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素問·水熱穴論』에서 熱病을 치료하는 五十九俞를 언급할 때 胸中の 熱을 瀉하는 輸穴로 大杼, 膺俞, 缺盆, 背俞를 제시하였고⁴⁴⁾, 『靈樞·刺節眞邪』에서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부족할 때 外熱과 內熱이 서로 부딪혀 腠理가 閉塞되면서 땀이 나오지 않고 혀와 입술이 타들어가며 피부가 갈라지고 목구멍이 건조하며 음식의 좋고 나쁨을 사양하지 않고 먹을 때 大杼를 取穴하는 것이 나온

다⁴⁵⁾. 上記 두 예를 살펴보았을 때 大杼는 上焦 氣機를 다스리는데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巨虛上廉⁴⁶⁾(ST37, Geoheosanglyeom, Juxushanglian)

巨虛上廉은 上巨虛라고도 하는데, 巨虛上廉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輸穴로 巨虛上廉의 부위와 효능 주치,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部位】 종아리 앞쪽면(anterior aspect of the leg), 犢鼻(ST35)와 解谿(ST41)를 연결하는 선 위, 犢鼻(ST35)에서 아래쪽으로 6寸. 『鍼灸甲乙經』: “在三里下三寸.”

【概要】 六腑下合穴(大腸), 脚氣八處穴

【主治】 『鍼灸甲乙經』 風水腫腫, 巨虛上廉主之. 胸脅槽滿, 惡聞人聲與木音, 巨虛上廉主之. 大腸病者, 腸中切痛而鳴濯灌, 冬日重感於寒, 當臍而痛, 不能久立, 與胃同候, 取巨虛上廉. 大腸有熱, 腸鳴, 腹滿, 俠臍痛, 食不化, 喘不能久立, 巨虛上廉主之. 小便黃, 腸鳴相逐, 上廉主之. 狂妄走, 善欠, 巨虛上廉主之. 飧泄, 大腸痛, 巨虛上廉主之.

巨虛上廉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輸穴로 三里穴 아래로 3寸 부위에 있는데, 衝脈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穴은 아니지만 足陽明胃經에 속하여 血海인 衝脈과 만나서 氣血을 공급하므로 血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효능주치 중에서 大腸의 六腑下合穴으로써 腸鳴, 腹滿과 같은 각종 大腸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惡聞人聲與木音, 狂妄走 등의 정신적인

4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 “腎合膀胱, 膀胱者, 津液之府也. 少陽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藏.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4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4. “大杼, 膺俞, 缺盆, 背俞, 此八者, 以瀉胸中之熱也.”

4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15. “黃帝曰, 刺節言撤衣, 夫子乃言盡刺諸陽之奇輸, 未有常處也, 願卒聞之. 岐伯曰, 是陽氣有餘, 而陰氣不足, 陰氣不足則內熱, 陽氣有餘則外熱, 內熱相搏, 熱於懷炭, 外畏綿帛, 不可近身, 又不可近席, 腠理閉塞, 則汗不出, 舌焦唇稿, 腊乾嗑燥, 飲食不讓美惡. 黃帝曰, 善, 取之奈何. 岐伯曰, 取之於其天府大杼三病, 又刺中膺, 以去其熱, 補足手太陰, 以去其汗, 熱去汗稀, 疾於徹衣.”

46) 巨虛上廉과 관련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pp.296-298.

측면이 내재된 질환을 치료하여 血海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衝脈은 상행하는 노선이 足少陰腎經과 나란히 가고, 하행하는 노선도 足少陰腎經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巨虛上廉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輸穴로 『素問·痿論』에서 “衝脈은 經脈의 바다로써 계곡에 흘러들어가 氣血을 대주고, 陽明과 宗筋에서 합하며, 陰陽이 宗筋의 모임을 총괄하고 氣街에서 모여 陽明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두 帶脈에 속하며 督脈에 이어진다.”⁴⁷⁾라고 하여 衝脈과 足陽明胃經이 宗筋에서 만나고, 다시 氣街에서 모이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아 衝脈의 하부 노선에서는 足少陰腎經 외에도 足陽明胃經도 일정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難經·二十八難』에서는 衝脈이 氣衝에서 일어나 足陽明經과 나란히 달려 배꼽을 끼고 상행한다⁴⁸⁾고 했는데, 衝脈이 氣血의 요충지로서 12經脈의 氣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足陽明胃經도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巨虛上廉은 足陽明胃經으로써 衝脈에 氣血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明代 李時珍의 『奇經八脈考』에서는 衝脈이 任脈과 함께 胞中에서 일어나 그 떠서 밖으로 향하는 것은 氣衝에서 일어나고 足陽明과 足少陰 두 經脈의 사이로 병행하여 상행한다⁴⁹⁾고 하였다.

3) 巨虛下廉⁵⁰⁾(ST39, Geoheohalyeom, Juxuxialian)

巨虛下廉은 下巨虛라고도 하는데, 巨虛下廉은 足

陽明胃經에 속하는 輸穴로 巨虛下廉의 부위와 효능 주치,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部位】종아리 앞쪽면(anterior aspect of the leg), 犢鼻(ST35)와 解谿(ST41)의 연결선 위, 犢鼻(ST35)에서 아래로 9寸. 『鍼灸甲乙經』: “在上廉下三寸”

【概要】六腑下合穴(小腸), 脚氣八處穴

【主治】『鍼灸甲乙經』 少腹痛, 泄出糜, 次指間熱, 若脈陷寒熱身痛, 唇渴不乾, 汗出, 毛髮焦, 脫肉, 少氣, 內有熱, 不欲動搖, 泄膿血, 腰引少腹痛, 暴驚, 狂言非常, 巨虛下廉主之. 溺黃, 下廉主之. 痺, 脛重, 足跗不收, 跟痛, 巨虛下廉主之.

巨虛下廉은 巨虛上廉으로부터 그 아래 3寸 부위에 있는데, 衝脈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穴은 아니지만 足陽明胃經에 속하여 血海인 衝脈과 만나서 氣血을 공급하므로 血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효능주치 중에서 小腸의 六腑下合穴으로써 少腹痛, 泄膿血과 같은 각종 小腸病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暴驚, 狂言非常 등의 정신적인 측면이 내재된 질환을 치료하여 血海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衝脈은 대체로 足少陰腎經과 나란히 가는 속성이 있는데, 巨虛上廉이 血海의 輸穴로 선정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巨虛下廉도 足陽明胃經의 輸穴로써 衝脈에 氣血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氣海 輸穴 선정의 이유

氣海에 대하여 『靈樞·海論』에서 “膻中은 氣의 바다가 되는데, 그 輸穴이 위로는 柱骨의 위아래에 있고, 앞으로는 人迎에 있다.”⁵¹⁾라고 했다. 또한 氣海의 유여와 부족에 대해서 같은 편에서 “氣海가 유여할 경우에는 氣가 胸中에 가득하고, 가슴이 갑갑하면서 천식이 있고 얼굴이 붉어지며, 氣海가 부족할 경우에는 氣가 적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⁵²⁾라고

4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6.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48)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80. “衝脈者, 起於氣衝, 并足陽明之經, 夾臍上行, 至胸中而散也.”

49) 李時珍 撰, 朴晃 譯撰. 國譯瀕湖脈學四言舉要奇經八脈考附脈訣攷證. 고양. 大星文化社. 1992. pp.161-162. “衝爲經脈之海, 又曰血海, 其脈與任脈, 皆起於少腹之內胞中, 其浮而外者, 起於氣衝, 並足陽明少陰二經之間, 循腹上行至橫骨, 挾臍左右各五分, 上行歷大赫氣穴四滿中注育脛商曲石關陰都通谷幽門, 至胸中而散, 凡二十四穴.”

50) 巨虛下廉과 관련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pp.302-305.

5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膻中者, 爲氣之海, 其輸上在於柱骨之上下, 前在於人迎.”

5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氣海有餘者, 氣滿胸中, 悅息面赤. 氣

했다. 이는 氣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이 답답한 느낌이 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浩然한 기상이 적어 멧멧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氣가 적어져 말을 주저하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등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膻中의 부위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하는 선의 중점에 있고, 宗氣가 있는 곳으로 氣海의 輸穴로는 膻中 근처의 華蓋, 紫宮, 玉堂 등의 輸穴이 선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柱骨之上下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人迎이 선정되었다. 柱骨에 대해서는 注釋家들에 따라 天柱骨로 보기도 하고, 鎖骨로 보기도 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人迎은 寸口脈처럼 診脈處이기는 하지만 膻中과는 조금 떨어진 頸部에 위치하고 있어 氣海의 輸穴로써 어떤 점이 유효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柱骨之上下가 氣海라는 맥락 안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탐색해보고, 氣海의 有餘와 不足에 따른 병증과 人迎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柱骨之上下

柱骨之上下에 대해서는 注釋家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그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楊上善은 柱骨을 鎖骨로 파악하였다.

둘째, 馬蒔는 柱骨의 上下를 督脈經의 天柱骨 上下로 보았다⁵³⁾.

셋째, 張介賓도 馬蒔처럼 柱骨의 上下를 목 뒤의 天柱骨로 보았는데, 그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張志聰은 氣海가 宗氣가 모이는 곳이고, 宗氣가 海로 흘러들어 그 아래의 것은 氣街로 주입되고, 위로는 息道로 달려가므로 氣가 胸에 있는 것은 膺膈과 背膈에서 머문다고 하면서 그 輸穴이 위로는 背膈의 天柱가 앞에는 가슴부위의 人迎이라고 하면서 氣海가 위로는 하늘에 통하고, 아래로는 經水에

海不足, 則氣少不足以言.”

53) 馬蒔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11. “膻中爲氣之海, 其輸穴在於督脈經天柱骨之上下.”

통한다고 했다⁵⁴⁾.

다섯째, 黃元御는 柱骨을 張景岳과 마찬가지로 天柱骨로 보고, 柱骨之上下는 督脈의 瘡門과 大椎라고 했는데⁵⁵⁾, 張景岳처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柱骨之上下에 대해서는 柱骨을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柱骨을 鎖骨로 생각하는 견해와 天柱骨로 생각하는 견해로 크게 나뉜다. 柱骨을 鎖骨로 생각한 사람은 楊上善이고, 馬蒔·張介賓·張志聰·黃元御 등 대부분의 注釋家들은 柱骨을 天柱骨로 보았다.

柱骨을 鎖骨로 본 楊上善의 註釋을 살펴보면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經脈連環』의 手陽明大腸經의 유주노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柱骨에 대하여 缺盆骨 위의 가장 높은 곳을 지칭한다고 했고, 手陽明의 脈氣가 柱骨의 위에 이르렀다가 다시 柱骨의 아래로 나와 缺盆으로 들어간다⁵⁶⁾고 했으며, 『黃帝內經太素·四海合』에서 柱骨之上下에 대하여 肺의 府인 手陽明大腸經脈이 柱骨의 上下로 행하여 缺盆으로 들어간다⁵⁷⁾고 했다. 즉 楊上善은 柱骨을 鎖骨로 파악하였고, 手陽明大腸經의 脈氣가 缺盆을 통해 胸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柱骨의 上下를 통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柱骨을 天柱骨로 본 注釋家들 중에서 張介賓이 그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張介賓은 膻中이 氣海이고, 이곳에 宗氣가 쌓여 喉嚨으로 나옴

54) 張隱庵·馬元臺 譯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246. “膻中者, 爲氣之海, 在膺胸之內, 宗氣之所聚也. 宗氣流於海, 其下者注於氣街, 其上者走於息道, 故氣在胸者, 止之膺與背俞, 故其輸上在背之天柱, 前在膺胸之人迎, 是氣海之上通於天, 而下通於經水也.”

55) 黃元御 撰. 靈樞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30. “膻中者, 心主之宮城, 宗氣之所在也. 柱骨, 項後天柱骨. 柱骨上下, 即督脈之瘡門大椎也.”

56) 楊上善 撰注. 錢超塵·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14. “柱骨, 謂缺盆骨上極高處也. 與諸脈會入缺盆之處, 名曰會也. 手陽明脈上至柱骨之上, 復出柱骨之下, 入缺盆也.”

57) 楊上善 撰注. 錢超塵·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3. “膻, 胸中也, 音檀. 食入胃已, 其氣分爲三道, 有氣上行經隧, 聚於胸中, 名曰氣海, 爲肺所主, 手陽明是肺府脈, 行於柱骨上下, 入缺盆, 支者上行至鼻, 爲足陽明, 循頸下人迎之前. 皆是膻中氣海, 氣之輸也.”

으로써 心脈을 관통하여 호흡을 행하는데, 頡頏(콧구멍 뒤의 후비도)이 分氣가 누설되는 곳으로 頡頏을 기점으로 뒤에는 柱骨의 上下가 있고 앞으로는 人迎이 있으며, 柱骨의 上下는 督脈의 瘡門과 大椎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⁵⁸⁾.

四海를 말할 때 보통 四氣街도 함께 관련지어 말하는데, 『靈樞·衛氣』에서 “氣가 胸部에 있는 경우에는 膺腋와 背腋에서 그친다.”⁵⁹⁾라고 하여 가슴과 등에 있는 수혈이 대응되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靈樞·海論』에서도 비록 가슴 부위는 아니지만, 그 輸穴로 선정된 柱骨之上下와 人迎이 앞뒤의 관계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楊上善이 柱骨之上下를 氣海의 氣와 연관을 짓기 위해 手陽明大腸經의 脈氣가 柱骨之上下로 행하여 缺盆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나, 氣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것은 肺이고 手太陰肺經의 유주노선 설명에서는 柱骨之上下가 나오지 않으므로 『靈樞·海論』에 쓰인 柱骨을 鎖骨로 보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柱骨之上下는 비록 膺中처럼 胸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胸部로 들어가는 길목인 목에 위치하고, 氣를 호흡하는 코의 뒤쪽에 위치하여 氣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張介賓도 頡頏을 기점으로 앞뒤에 있는 輸穴을 생각하였다. 柱骨之上下의 구체적인 輸穴로는 大椎穴과 瘡門穴을 말했는데, 大椎穴의 주치에는 大氣滿喘 등 氣海가 유여할 때 나타나는 氣滿胸中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나⁶⁰⁾, 瘡門穴의 주치에는 項強, 舌緩, 瘡不能言 등 막에 없으므로 大椎穴을 주로 택하여 취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8) 張介賓 原著.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類經 編纂委員會 編著.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387. “膺中, 胸中也, 肺之所居, 諸氣者, 皆屬於肺, 是爲眞氣, 亦曰宗氣, 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而行呼吸, 故膺中爲之氣海. 柱骨項後天柱骨也, 憂患無言論曰, 頡頏者, 分氣之所泄也, 故氣海運行之輸, 一在頡頏之後即柱骨之上下, 謂督脈之瘡門大椎也, 一在頡頏之前, 謂足陽明之人迎也.”
5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6. “氣在胸者, 止之膺與背腋.”
60) 大椎와 관련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下). 大田. 종려나무. 2016. p.510.

2) 人迎⁶¹⁾(ST9, Inyeong, Renying)

人迎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輸穴로 그 부위와 효능 주치,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部位】 앞쪽 목 부위(anterior region of the neck), 방패연골(thyroid cartilage) 위모서리와 같은 높이,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 앞쪽, 온목동맥(common carotid a.)이 뛰는 곳. 『鍼灸甲乙經』: “在頸大脈動應手, 俠結喉.”

【概要】 足陽明胃·足少陽膽의 交會穴

【主治】 『鍼灸甲乙經』 陽逆頭痛, 胸滿不得息. 胸滿呼吸噎, 窮詰窘不得息. 刺人迎, 刺入四分, 不幸殺人.

人迎은 結喉 양방에 위치하며 動脈이 뛰는 곳으로 氣街처럼 動脈이 있어 氣의 집적이 많고, 비록 膺中처럼 胸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胸部로 들어가는 길목인 목에 위치하고, 胸滿不得息, 胸滿呼吸噎, 窮詰窘不得息 등의 病症은 氣海가 有餘할 때 나타나는 氣滿胸中 및 悅息과 관련되기 때문에 氣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靈樞·寒熱病』에서 “목옆의 動脈은 人迎인데 人迎은 足陽明이니, 嬰筋의 앞쪽에 있다. 陽邪가 거슬러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그득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人迎을 취한다.”⁶²⁾라고 하여 人迎穴이 足陽明에 속하는 동맥처로 陽邪가 거슬러 나타나는 胸滿不得息을 치료할 때 取穴한다고 했다. 또한 『靈樞·衛氣失常』에서는 衛氣가 胸中에 쌓일 때는 상부인 人迎, 天突, 喉中에서 取穴하고, 腹部에 쌓일 때는 三리와 氣街를 瀉한다⁶³⁾고 했는데, 이는 人迎

61) 人迎과 관련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pp.210-213.
6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0. “頸側之動脈人迎, 人迎, 足陽明也, 在嬰筋之前. ……; 陽逆頭痛, 胸滿不得息, 取之人迎.”
6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5. “伯高曰, 其氣積於胸中者, 上取之. 積於腹中者, 下取之. 上下皆滿者, 傍取之. 黃帝曰: 取之奈何. 伯高對曰: 積於上, 瀉人迎天突喉中. 積於下者, 瀉三理與氣街.”

穴이 氣海가 有餘할 때 나타나는 氣滿胸中(胸滿)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鍼灸甲乙經』에서 “人迎은 일명 天五會라고도 하는데, 목에 있는 大脈이 움직여서 손에 응하고, 結喉를 끼고 있으며, 이로써 五藏의 氣를 살핀다. 足陽明의 脈氣가 發하는데, 땀을 때 수가 없고, 4푼 깊이로 鍼刺하는데, 만약 깊이 자침하면 불행히도 사람을 죽인다.”⁶⁴⁾라고 했는데, 이는 人迎穴이 온몸동맥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刺鍼함에 있어서 깊게 刺鍼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혈자리로 取穴하기에 까다로운 輸穴이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輸穴임을 의미하는데, 氣海의 輸穴로 선정된 것은 動脈이 있고, 胸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胸部의 상태를 조절하는데 위험성을 띠고는 있으나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 水穀之海 輸穴 선정의 이유

『靈樞·海論』에서 “胃는 水穀의 바다가 되어 그 輸穴이 위로는 氣街에 있고, 아래로는 三里에 이른다.”⁶⁵⁾고 했고, 水穀之海의 유여와 부족에 대해 같은 편에서 “水穀의 海가 유여하면 배가 그득하고, 水穀의 海가 부족하면 배가 고프더라도 곡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⁶⁶⁾라고 했다. 이는 水穀之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이 각각적으로 배가 그득하다고 느끼거나 거식증처럼 배고픈데도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鍼灸甲乙經』에서는 ‘腹滿’이 아니라 ‘腹脹’으로 되어 있고, 『黃帝內經太素』에는 ‘腹滿脹’으로 되어 있는데, 腹滿과 腹脹의 차이를 살펴보면 腹滿은 각각적으로 배가 그득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腹脹은 형태적으로나 육안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氣街와 三里는 모두 足陽明胃經에 속하지만, 上腕, 中腕, 下腕穴처럼 胃와 가깝지 않고 胃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리이다. 氣街와 三里는 비록 胃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黃帝內經』에서 氣街와 三里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水穀之海의 輸穴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氣街와 三里의 부위, 효능주치, 『黃帝內經』에서 언급된 것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 水穀之海 輸穴 선정의 의미를 따져보고자 한다.

1) 氣街⁶⁷⁾(ST30, Giga, Qijie)

氣街는 氣衝이라고도 하는데 足陽明胃經에 속하며 그 부위와 효능 주치 등은 다음과 같다.

【部位】살 부위(groin region), 두덩결합(pubic symphysis) 위모서리와 같은 높이, 앞정중선(anterior median line)에서 가쪽으로 2寸, 넓다리동맥(femoral a.)이 뛰는 곳. 『鍼灸甲乙經』: “在歸來下, 鼠臑上一寸.”

【主治】『鍼灸甲乙經』 石水刺氣衝. 腹中有大熱不安, 腹有大氣如相俠, 暴腹脹滿, 癰, 淫瀝, 氣衝主之.

氣街는 넓다리 동맥이 뛰는 곳으로 歸來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서혜부 위 1寸에 있는데, 두덩결합 위모서리와 같은 높이로 앞정중선에서 가쪽으로 2寸 떨어진 곳에 있어 胃와 가깝지 않다. 그러나, 氣街의 주치증 중에 水穀之海가 유여하면 나타나는 腹中有大熱不安, 腹有大氣如相俠, 暴腹脹滿 증상이 있으므로 水穀之海의 혈자리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氣街라는 輸穴은 氣가 腹部나 脇部와 같은 체간에서 下肢로 내려갈 때에 통로나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하여 氣가 집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素問·痿論』에서 “陽明은 五藏六府의 바다로 宗筋을濡

64)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p.298-299. “人迎, 一名天五會, 在頸大脈動應手, 依結喉, 以候五藏氣, 足陽明脈氣所發. 禁不可灸, 刺入四分, 過深不幸殺人.”

6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胃者, 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6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水穀之海有餘, 則腹滿. 水穀之海不足, 則饑不受穀食.” 같은 책에서 甲乙에는 ‘腹’ 밑에 ‘脹’字가 더 있고, 太素에는 ‘滿’ 밑에 ‘脹’字가 더 있다고 하였다.

67) 氣街(=氣衝)와 관련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p.261-263.

潤하는 것을 주관하고, 宗筋은 뼈를 묶어주고 機關을 활리하게 하는 것을 주관한다. 衝脈은 經脈의 바다로써 계곡에 흘러들어가 氣血을 대주고, 陽明과 宗筋에서 합하며, 陰陽이 宗筋의 모임을 총괄하고 氣街에서 모여 陽明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두 帶脈에 속하며 督脈에 이어진다.”⁶⁸⁾라고 했고, 『素問·骨空論』에서 衝脈을 언급할 때에 “衝脈은 氣街에서 일어나 少陰經과 나란히 달려 배꼽을 끼고서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흠어진다.”⁶⁹⁾라고 했는데, 이는 衝脈이 十二經脈의 海로 先天之精과 연관되는 足少陰腎經 및 後天之精과 연관되는 足陽明胃經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한편 『素問·水熱穴論』에서는 “氣街와 三里와 巨虛上下廉 이 8개는 胃中の 熱을 瀉한다.”⁷⁰⁾라고 했는데, 胃熱로 인한 腹滿도 氣街로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靈樞·衛氣失常』에서는 衛氣가 胸中에 쌓일 때는 상부인 人迎, 天突, 喉中에서 取穴하고, 腹部에 쌓일 때는 三里와 氣街를 瀉한다⁷¹⁾고 했는데, 이는 氣街穴을 水穀之海가 有餘할 때 나타나는 腹滿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靈樞·經脈』에서는 足陽明胃經의 유주노선을 설명할 때 胃口에서 일어난 足陽明의 脈氣가 아래로 腹部를 순행하고 氣街를 지나서 髀關에 합쳐진다⁷²⁾고 했고, 足少陽膽經의 유주노선을 설명할 때

脈氣가 횡격막을 관통하여 肝에 絡하고, 膽에 속하며, 脇部를 순행하고서 氣街로 나와 陰毛 부근을 돌아서 髀關 중으로 횡입한다⁷³⁾고 했으며,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衝脈을 말하면서 衝脈이 위로는 頰頰에서 나와 모든 陽經에 스며들어 모든 精을 흘러들어가게 하고, 그 아래로는 足少陰의 大絡에 주입되어 氣街로 나와 허벅지 안쪽의 모서리를 따라 오금 속으로 들어간다⁷⁴⁾고 했는데, 이는 氣街라는 輸穴이 氣가 腹部나 脇部와 같은 체간에서 下肢로 내려갈 때에 통로나 교차로의 역할을 함을 말하며, 이는 氣街穴이 氣가 집적되어 있는 곳임을 의미한다.

또한 『靈樞·雜病』에서 “腹痛에 배꼽 좌우의 動脈을 자침하는데, 이미 자침하고서 눌러주면 곧장 낫고, 낫지 않으면 氣街에 자침하니, 이미 자침한 뒤에 손으로 눌러주면 곧장 낫는다.”⁷⁵⁾라고 하여 腹痛의 치료와 氣街穴과의 연관성을 말하였다.

2) 三里⁷⁶⁾(ST36, samni, sanli)

三里는 足三里라고도 하는데, 그 부위와 효능 주치,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部位】 종아리 앞쪽면 (anterior aspect of the leg), 犢鼻(ST35)와 解谿(ST41)를 연결하는 선 위, 犢鼻(ST35)에서 아래쪽으로 3寸. 『鍼灸甲乙經』: “在膝下三寸, 拜外廉.”

【概要】 胃經의 合土穴, 六腑下合穴(胃), 四總穴(肚腹), 中風七處穴, 回陽九針穴, 腳氣八處穴

【主治】 『鍼灸甲乙經』 陽厥淒淒而寒, 少腹堅, 頭

6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6. “陽明者, 五藏六府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6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9.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7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4. “氣街, 三里, 巨虛上下廉, 此八者, 以瀉胃中之熱也.”

7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5. “伯高曰, 其氣積於胸中者, 上取之. 積於腹中者, 下取之. 上下皆滿者, 傍取之. 黃帝曰: 取之奈何. 伯高對曰: 積於上, 瀉人迎天突喉中. 積於下者, 瀉三里與氣街.”

7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79-80. “胃足陽明之脈, ……; 其支者, 起於胃口, 下循腹裏, 下至氣街中, 而合以下髀關, 抵伏兔, 下膝臑中, 下循脛外廉, 下足跗, 入中指內間.”

7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2. “膽足少陽之脈, ……; 貫膈, 絡肝, 屬膽, 循脇裏, 出氣街, 繞毛際, 橫入髀關中.”

7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89. “夫衝脈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稟焉. 其上者, 出于頰頰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臏中.”

7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2. “腹痛, 刺臍左右動脈, 已刺按之, 立已. 不已, 刺氣街, 已刺按之, 立已.”

76) 三里(=足三里)와 관련한 부위, 효능 주치 등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p.277-295.

痛, 脛股腹痛, 消中, 小便不利, 善嘔, 三里主之. 狂歌, 妄罵, 怒, 惡人與火, 罵言, 三里主之. 瘥, 中有寒, 取三里. 瘥身反折口噤, 喉痺不能言, 三里主之. 五臟六腑之脹, 皆取三里. 水腫脹, 皮腫, 三里主之. 腹中不便, 取三里, 盛則瀉之, 虛則補之. 霍亂, 遺失氣, 三里主之. 陰氣不足, 熱中消穀善饑, 腹熱, 身煩, 狂言, 三里主之. 胸中瘀血, 胸脅痞滿, 痛不能久立, 膝痠疼, 三里主之. 乳癰有熱, 三里主之.

삼리는 犢鼻에서 아래쪽으로 3寸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胃와 가깝지는 않으나, 足陽明胃經의 合穴이며, 胃病을 치료하는 六腑下合穴로, 四總穴에 속하여 肚腹을 치료하고, 삼리의 주치증 중에 水穀之海 유여로 나타날 수 있는 腹滿과 유사한 腹中不便을 치료하므로 水穀之海의 혈자리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黃帝內經』에 나오는 삼리를 살펴보니, 『素問·水熱穴論』에서는 “氣街와 삼리와 巨虛上下廉 이 8개는 胃中の 熱을 瀉한다.”⁷⁷⁾라고 했는데, 胃熱로 인한 腹滿도 삼리로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는 胃의 六腑下合穴이 삼리임을 말하였고, 음식이 들어차서 통하지 않고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삼리穴을 취한다고 했는데⁷⁸⁾, 음식이 소화가 안 되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은 水穀之海有餘로 인한 腹滿症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靈樞·四時氣』에서 腸中이 불편한 것을 삼리로 치료한다⁷⁹⁾고 했는데, 腹滿도 腸中不便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靈樞·五邪』에서 삼리穴을 補하여 胃中을 따뜻하게 한다⁸⁰⁾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胃寒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腹滿에 삼리穴을 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靈樞·五邪』에서 邪氣가 脾胃에 있어서 肌肉痛이 있고, 陰陽의 관계에서 陽氣가 유여하고 陰氣가 부족할 경우에 熱中으로 善饑가 나타나고, 陰氣가 유여하고 陽氣가 부족할 경우에 寒中으로 腸鳴과 腹痛이 나타날 때 寒熱의 조절을 삼리穴에서 한다⁸¹⁾고 한 것으로 보아, 水穀之海 유여로 인한 腹滿과 水穀之海 부족으로 인한 饑不受穀食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삼리穴을 水穀之海의 輸穴로 선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靈樞·五亂』에서 腸胃에서 氣가 어지러워지면 霍亂이 되고, 腸胃의 음식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삼리를 취한다⁸²⁾고 했는데, 飲食不下로 腹滿이 생길 수 있고, 『靈樞·衛氣失常』에서는 衛氣가 胸中에 쌓일 때는 상부인 人迎, 天突, 喉中에서 取穴하고, 腹部에 쌓일 때는 삼리와 氣街를 瀉한다⁸³⁾고 했는데, 이는 삼리穴을 水穀之海가 有餘할 때 나타나는 腹滿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難經·六十八難』에서 “合穴은 거스르는 氣와 설사를 주관한다.”⁸⁴⁾고 한 것으로 보아 足陽明胃經의 合穴에 해당하는 삼리穴은 飲食不下로 인해 생긴 腹滿의 병증을 치료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III. 考察

『靈樞·海論』에서 자연계의 바다에 東西南北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체도 이에 응하여 髓海, 血海, 氣海, 水穀之海가 있다고 했고, 四海의 輸穴을 선정

7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4. “氣街, 三里, 巨虛上下廉, 此八者, 以瀉胃中之熱也.”
7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9. “胃合於三里, ……; 胃病者, 腹脹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脇, 膈咽不通, 食飲不下, 取之三里也.”
7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4. “腸中不便, 取三里.”
8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8. “補三里以溫胃中.”

8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8. “邪在脾胃, 則病肌肉痛, 陽氣有餘, 陰氣不足, 則熱中善饑, 陽氣不足, 陰氣有餘, 則寒中腸鳴腹痛, 陰陽俱有餘, 若俱不足, 則有寒有熱, 皆調於三里.”
8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6. “亂於腸胃, 則爲霍亂. ……; 氣在於腸胃者, 取之足太陰陽明, 不下者, 取之三里.”
8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5. “伯高曰, 其氣積於胸中者, 上取之. 積於腹中者, 下取之. 上下皆滿者, 傍取之. 黃帝曰: 取之奈何. 伯高對曰: 積於上, 瀉人迎天突喉中. 積於下者, 瀉三里與氣街.”
84)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0. p.158. “合主逆氣而泄”

했는데, 왜 그 輸穴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 『靈樞·海論』에 나오는 四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과 각 輸穴의 효능 주치, 해부학적 부위, 특징을 따지는 등의 방법을 통해 輸穴 선정의 이유를 추측해 보았다.

첫째 髓海의 輸穴로 蓋와 風府를 말했는데, 蓋는 기존 注釋家들처럼 百會穴이나 顛會穴과 같이 어떤 특정한 輸穴로 인식하기보다는 蓋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蓋가 특정한 혈자리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靈樞·海論』의 작자는 분명히 그 輸穴을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四海의 輸穴 선정에 있어서 柱骨之上下처럼 輸穴을 말하지 않고 넓게 지칭한 예가 있기에 髓海와 관련하여 말한 蓋를 어느 한 輸穴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蓋가 頭蓋로써 腦의 범주 안에 속하므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髓海의 또 다른 輸穴인 風府는 腦의 범주 안에 속하고, 효능 주치 중에 髓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狂症과 目眩을 치료하며, 督脈에 속하여 腦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므로 髓海의 輸穴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血海의 輸穴은 大杼, 巨虛上下廉이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이유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大杼는 비록 衝脈에 속하지는 않지만 骨會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 근거하여 骨會인 大杼가 血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筋癱疾을 치료하여 『靈樞·海論』에서 말한 血海의 病證이 일종의 망상과 환각과 病識이 없는 것 등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血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巨虛上下廉은 모두 衝脈에 속하지는 않지만, 足陽明胃經에 속하여 血海인 衝脈과 만나 氣血을 공급하고, 효능주치를 살펴보니, 巨虛上廉은 惡聞人聲與木音, 狂妄走 등을, 巨虛下廉은 暴驚, 狂言非常 등의 정신적인 측면이 내재된 질환을 치료하여 血海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氣海의 輸穴로는 柱骨之上下와 人迎이 선정되었는데, 柱骨을 天柱骨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靈樞·衛氣』에서 “氣가 胸部에 있는

경우에는 膺膈과 背膈에서 그친다.”⁸⁵⁾라고 하여 가슴과 등에 있는 수혈이 대응되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靈樞·海論』에서도 비록 가슴 부위는 아니지만, 그 輸穴로 선정된 柱骨之上下와 人迎이 앞뒤의 관계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氣海이기 때문에 氣를 호흡하는 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天柱骨의 上下가 비록 膈中처럼 胸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胸部로 들어가는 길목인 목에 위치하여 輸穴로 쓰일 수 있고, 寸口脈과 함께 診脈의 부위로 쓰인 人迎이 氣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人迎은 結喉 양방에 위치하며 動脈이 뛰는 곳으로 氣街처럼 動脈이 있어 氣의 집적이 많고, 비록 膈中처럼 胸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胸部로 들어가는 길목인 목에 위치하고, 胸滿不得息, 胸滿呼吸噎, 窮詰窘不得息 등의 胸滿을 치료하므로 氣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水穀之海의 輸穴로는 氣街와 三里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氣街는 두덩결합 위모서리와 같은 높이로 臑中에서 가쪽으로 2寸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胃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氣街의 주치증 중에 水穀之海가 유여하면 나타나는 腹中有大熱不安, 腹有大氣如相俠, 暴腹脹滿 증상이 있고, 氣街穴이 動脈이 뛰는 곳이며 經脈의 흐름에 있어서 통로나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水穀之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水穀之海의 輸穴 중 三里穴은 犢鼻에서 아래쪽으로 3寸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胃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足陽明胃經의 合穴로 四總穴에 속하여 肚腹을 치료하고, 三里의 주치증 중에 水穀之海 유여로 나타날 수 있는 腹滿과 유사한 腹中不便을 치료하며, 濇胃中하고, 合穴로써 氣逆을 치료하므로 水穀之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四海의 輸穴 선정과 관련이 있는 四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증상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8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6. “氣在胸者, 止之膺與背膈.”

髓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은 너무 과하게 행동하거나 머리가 팽 돌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눈앞이 깜깜해지고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귀찮아지며 자꾸 눕고 싶어 하는 등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血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은 그 몸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작다고 생각하는 등 일종의 망상이나 환각이 있고 발끈하거나 위축되어 病識이 없는 것 등은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측면이 있다. 氣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도 답답한 느낌이 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氣가 적어 말을 주저하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등 정신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고, 水穀之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병증에도 자각적으로 배가 그득하다고 느끼거나 거식증처럼 배고픈데도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등은 정신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靈樞·海論』에서 말한 四海의 輸穴 선정뿐만 아니라 四海의 의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精氣神血이라고 말하는데, 『靈樞·海論』에서 논의된 髓海, 氣海, 血海, 水穀之海는 精氣神血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靈樞·海論』에서 “腦는 髓의 바다가 된다.”⁸⁶⁾라고 했는데, 髓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北方이 찬 기운을 생하여 찬 기운이 물을 생하면 물은 鹹味를 생하고, 鹹味는 腎을 생하며, 腎은 骨髓를 생한다.”⁸⁷⁾라고 하여 五臟 중에 腎이 骨髓를 생함을 말하였고,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腎이 骨髓의 氣를 저장하고 있음을 말하였으며⁸⁸⁾, 『素問·痿論』에서 腎이 骨髓를 주관함을 말하였고⁸⁹⁾, 『靈樞·經脈』에서는 精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腦髓가 생성됨을 말하여 精과 腦髓와의 관계를 말했는데⁹⁰⁾,

이는 髓海인 腦가 몸의 구성요소인 精氣神血 중에서 精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本草綱目』에서 “腦가 元神之府가 된다.”⁹¹⁾라고 하여 腦가 精氣神血 중에서 神과도 관련이 있음을 말했고, 『素問·脈要精微論』에서 “무릇 五臟은 몸의 강건함이니, 머리는 精明의 창고로 머리가 기울고 보는 것이 깊으면 정신이 장차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여 頭腦가 精神과 관련이 있음을 말했다⁹²⁾. 따라서 髓海는 精氣神血 중에서 精神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氣海에 대하여 『靈樞·海論』에서 “膻中은 氣의 바다가 된다.”⁹³⁾고 하였고, 『靈樞·五味』에서 “그 大氣가 멎어서 행하지 않는 것은 흉중에 쌓이는데 氣海라고 명명하니, 肺에서 나와 인후부를 순행하므로 내쉬면 나오고, 들이쉬면 들어간다.”⁹⁴⁾라고 하여 氣가 胸中에 쌓여 氣海를 이룸을 말하였는데, 이는 몸의 精氣神血 구성 요소 중 氣가 氣海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靈樞·海論』의 앞부분에서 血海를 언급하고, 중간에서 “衝脈은 十二經脈의 바다가 된다.”⁹⁵⁾라고 했는데, 衝脈은 四海 중에서 血海로 精氣神血 중에서 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任脈과 衝脈(太衝脈)이 왕성하면 月經이 시작되어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任脈과 衝脈이 허해지면 자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음을 말하였는데⁹⁶⁾, 이는 衝脈이 血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8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腦爲髓之海.”

8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8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腎藏骨髓之氣也.”

8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6. “腎主身之骨髓.”

9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9. “黃帝曰,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91)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 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1300-1301. “腦爲元神之府.”

9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7. “夫五臟者, 身之強也,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9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膻中者, 爲氣之海.”

9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6. “其大氣之搏而不行者, 積於胸中, 命曰氣海, 出於肺, 循喉咽, 故呼則出, 吸則入.”

9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9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

『靈樞·五音五味』에서 衝脈이 胞中에서 일어나 위로 등의 안쪽을 순행하여 십이경락의 바다가 되고, 그 떠올라 밖으로 향하는 것은 복부를 따라 상행하여 인후부에서 모였다가 나누어져서 입술과 입에 이어지며, 血이 왕성하면 피부에 스며들어가 털을 생하게 하는데, 부인의 경우에는 매달 하는 月經으로 인하여 자주 출혈이 일어나 수염이 없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⁹⁷⁾. 이는 衝脈이 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四海 중에서 마지막으로 水穀之海는 精氣神血을 모두 생성하는 資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素問·五藏別論』에서 “胃는 水穀의 바다로 六府의 큰 원천이다.”⁹⁸⁾라고 하였고, 『素問·玉版』에서 “胃는 水穀과 氣血의 바다이다.”⁹⁹⁾라고 하여 胃가 水穀之海로써 氣血 생성의 원천임을 말하였다. 『靈樞·平人絕穀』에서는 “神은 水穀의 精氣이다.”¹⁰⁰⁾라고 하여 水穀과 神과의 관계를 말하였으며, 『素問·經脈別論』에서 水穀이 들어간 뒤에 精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등¹⁰¹⁾ 水穀이 氣血뿐만 아니라 精과 神의 생성에도 관여함을 말하였다. 한편 水穀之海가 精氣神血의 인체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마치 髓海, 氣海, 血海, 水穀之海 중에서

水穀之海의 輸穴인 三里와 氣街가 다른 輸穴보다 그 輸穴이 가지고 있는 효능 주치의 영향력이 크고 네트워킹이 광범위한 것과는도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靈樞·衛氣』에서는 頭, 胸, 腹, 脛의 네 부위에 氣街가 있음을 말했는데, 『靈樞·海論』과 같이 구체적인 輸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머리에 氣가 있을 때는 腦에 멈추고, 가슴에 氣가 있을 때는 가슴의 腧穴과 背腧穴에 멈추고, 배에 氣가 있을 경우에는 背腧와 衝脈에서 멈춘다고 하였고, 정강이에 氣가 있을 경우에는 氣街와 承山 등에서 멈춘다고 하였다¹⁰²⁾. 『靈樞·衛氣』에서 언급한 氣街의 내용을 『靈樞·海論』에 나오는 四海의 내용과 서로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髓海는 腦와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頭氣有街와 관련이 있고, 氣海는 胸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胸氣有街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胃를 水穀之海라고 했으므로 水穀之海는 腹氣有街와 관련이 있으나, 血海는 十二經之海로 衝脈이 頭·胸·腹·脛의 氣街와 모두 연관될 수 있으므로 어떤 氣街라고 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衝脈이 胞中에서 起始하고 腹氣有街의 輸穴과 관련하여 衝脈이 언급되었으므로 血海를 腹氣有街와 연관 짓고, 水穀之海는 그 輸穴이 氣街와 三里 등 下肢에 있고, 脛氣有街의 輸穴과 관련하여 氣街가 언급되었으므로 脛氣有街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四海는 인체를 이루고 있는 精氣神血 등의 요소가 유여하거나 부족할 때에 氣가 집적되어 있는 輸穴을 취하여 가장 편리하게 精氣神血 구성 요소의 虛實을 조절한다고 생각한다.

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 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六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9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82. “黃帝曰, 婦人無鬢者, 無血氣乎. 岐伯曰,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各(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獨盛則澹滲皮膚, 生毫毛. 今婦人之生, 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數脫血也. 衝任之脈, 不榮口唇, 故鬢不生焉.”

9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42. “胃者, 水穀之海, 六腑之大源也.”

9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1. “胃者, 水穀氣血之海也.”

10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2. “神者, 水穀之精氣也.”

10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6.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10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6. “請言氣街, 胸氣有街, 腹氣有街, 頭氣有街, 脛氣有街. 故氣在頭者, 止之於腦, 氣在胸者, 止之膺與背腧, 氣在腹者, 止之背腧, 與衝脈於臍左右之動脈者, 氣在脛者, 止之於氣街, 與承山踝上以下.”

표 1. 四海의 有餘不足證과 輸穴의 해부학적 부위, 효능주치, 특징

四海	有餘/不足	輸穴	해부학적 부위	효능주치	특징
髓海	輕勁多力, 自過其度/ 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蓋	頭蓋 전체	治目眩, 狂症	蓋가 頭蓋로써 腦의 범주 안에 속함
		風府	後髮際에서 1촌 올라간 뒷목 가운데 부분	治目眩, 狂走欲自殺	督脈에 속하고, 風府를 통해 入腦함
血海	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大杼	첫째 등뼈가시돌기 아래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	治筋癱疾, 身卷學急	骨會인 大杼가 血과도 연결될 수 있고, 上焦 氣機를 다스림
		巨虛 上廉	三里穴 아래 3寸 떨어진 곳	治狂妄走	足陽明胃經의 輸穴로써 衝脈에 氣血을 공급함
		巨虛 下廉	三里穴 아래 6寸 떨어진 곳	治狂言非常	足陽明胃經의 輸穴로써 衝脈에 氣血을 공급함
氣海	氣滿胸中, 悅息面赤/ 氣少不足以言	柱骨之 上下	天柱骨의 上下	治大氣滿喘	胸部로 들어가는 길목인 목에 위치하고, 氣를 호흡하는 코의 뒤쪽에 위치함
		人迎	結喉 양쪽에 위치하며 動脈이 뛰는 곳	治胸滿不得息	動脈이 있고, 胸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胸部의 상태를 조절하는데 위험성을 띠고는 있으나 유효함
水穀 之海	腹滿/飢不受穀食	氣街	넙다리 동맥이 뛰는 곳으로 歸來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서혜부 위 1寸	治暴腹脹滿	動脈이 있고, 교차로의 역할을 하며, 氣가 집적됨
		三里	犢鼻穴 아래 3寸 떨어진 곳	治腹中不便, 善飢	合穴로써 逆氣를 다스림

IV. 結論

1. 髓海의 蓋는 頭蓋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腦의 범주 안에 속하므로 선정되었을 것이고, 風府는 腦의 범주 안에 속하고, 狂症과 目眩을 치료하며, 督脈에서 腦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므로 髓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2. 血海의 大杼는 衝脈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筋癱疾을 치료하고, 骨會로 血과 연관되고 上焦 氣機를 다스리기 때문에, 巨虛上下廉도 衝脈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측면이 내재된 질환을 치료하고, 足陽明胃經에 속하여 衝脈과 만나 氣血을 공급하는 면에서 血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3. 氣海의 柱骨之上下는 天柱骨의 上下로 비록 膻中처럼 胸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목에 위치하고, 그 중 大椎는 大氣滿喘을 치료하기 때

문에, 人迎은 胸滿을 치료하고, 동맥이 있어 진단 처가 되므로 氣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4. 水穀之海의 氣街는 腹滿을 치료하고 動脈이 뛰며 교차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三里는 腹中不便을 치료하며, 合穴로써 氣逆을 치료하므로 水穀之海의 輸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5. 四海 輸穴 선정은 대부분 효능 주치와 관련성이 높았으며, 四海의 유여와 부족에 따른 증상은 모두 정신적인 부분 혹은 氣病이 내재된 공통점이 있었다.
6. 四海를 精氣神血과 연결시키면 髓海-精神, 氣海-氣, 血海-血로 연결되고, 水穀之海는 精氣神血을 모두 자양하며, 四氣街와 연결시키면 髓海-頭氣有街, 氣海-胸氣有街, 水穀之海-腹氣有街와 연결되거나 혹은 血海-腹氣有街, 水穀之海-脛氣有街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四海는 인체를 이루고 있는 精氣神血 등의 요소가 유여하거나 부족할 때에 氣가 집적되어 있는 輸穴을 취하여 가장 편리하게 精氣神血 구성 요소의 虛實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며, 『靈樞·海論』에 나오는 四海 輸穴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 臨床 치료에서 四海 輸穴을 정신적인 측면이 내재된 질환에 활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3. 黃元御 撰. 靈樞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4. 강헌석, 박경. 『靈樞·海論』에 對한 研究. 한국전통의학지. 2000. 10(1).
15. 각범희, 윤종화.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關係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19. 32(4).
16. 김범석. 韓醫學의 腦에 對한 研究 - 文獻考察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7. 김진호, 임이빈, 방정균. 八會穴에 對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3).
18. 丁彰炫.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1).
19. 遲笑塵, 王玲. 靈樞海論對針灸臨床的理論指導. 湖北中醫雜誌. 2016. 38(9).
20. 陳靜雯, 陳麗, 何昭璇, 曾芳. 淺析四海理論及臨床應用. 成都中醫藥大學學報. 2018. 41(4).
21. 陳志耿, 高嘉駿. 黃帝內經四海發微. 中華中醫藥雜誌. 2018. 33(11).

Reference

1. 馬蒔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2.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3. 楊上善 撰注. 錢超塵·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4. 李時珍 撰. 朴旻 譯釋. 國譯瀕湖脈學四言舉要奇經八脈考附脈訣攷證. 高陽. 大星文化社. 1992.
5.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v
6. 張介賓 原著.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類經 編纂委員會 編著.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7. 張隱庵·馬元臺 譯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8.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9.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上). 大田. 종려나무. 2016.
10.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經絡經穴學各論(下). 大田. 종려나무. 2016.
1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